가상화폐와 실재화폐

(출6:14~30)

26.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27.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28.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2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30.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심으로 <가상화폐와 실재화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가상화폐와 실재화폐'
이 사람이 실재하는 사람의 이름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에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정체불명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가 비트코인(Bitcoin)이라고 하는 돈을 만들어 내는데, 이 돈은 우리가 지갑에 넣고 다니는 지폐나 동전과 같이 물리적인 형태의 돈이 아니라, 오직 인터넷 온라인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입니다.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그런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관여하지 못하는 그런 돈입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가상화폐가 실질적으로 2,100만개가 총 통화량으로 정해져서 만들어졌는데, 개당 20만원이었는데 한 때는 코인 하나당 100만원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어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돈을 캐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총 통화량은 2,100만개로 정해져있는데 그 안에서 캐내는 겁니다.
캐낸다는 것이 광산에서 금을 캐듯이 캐낸다는 것인데, 저도 써본 적도 없고 가져본 적도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통해서 풀면 이 비트코인 하나가 주어진다고 하는데, 이 주어진 비트코인이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외국의 물건을 사려면 복잡한데 이것은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하면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2,100만개 중에서 1,200만개 이상이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만 전문적으로 발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중국에서는 컴퓨터 3,000대를 동원해서 전문적으로 비트코인만을 캐내는 공장이 한 달에 16억 원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을 캐내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거래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물리적인 화폐를 지불하고 거래를 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신용카드도 그렇고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을 보면 물리적인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만 오고가는데 앞으로는 이런 경향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금이나 은 같은 실물이 아니라 장부에 쓰여 진 숫자로 거래가 되는데 숫자는 결국 정보(Information)입니다.
화폐라는 것이 정보에 불과한 것으로 미래에는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금화나 은화 등의 현물 화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점차적인 경향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30년 전만 해도 월급이 월급봉투가 없이 인터넷 뱅킹으로 숫자만 계좌로 들어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또 그 숫자에서 일부를 지불하면서 물건을 사고, 물건 파는 사람도 숫자만 받아서 자기의 계좌 안의 숫자로 다른 물건을 사고,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온라인상의 화폐가 실제로는 가상화폐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숫자일 뿐인데, 실재화폐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캐내는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이 실재화폐를 캐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돈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숫자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인데, 실재화폐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실재화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의 힘”이라는 말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돈을 왜 좋아합니까? 힘이 있어서 좋아합니다.
만약에 힘을 잃어버린 돈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평생을 광야에서 혼자 살아야한다고 운명 지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100억이 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혼자 살면서 물 한 방울 구입할 수 없는 힘이 없는 100억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돈=힘이고, 돈의 의미는 힘에 있습니다. 그것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입니다.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실재화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입니다.
물건을 사는 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일, 모든 일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 군사, 문화, 교육…

아이들에게 급식을 무료로 하느냐 마느냐, 국가 예산이 어떻다며 맨날 돈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도 돈통령이라서 나라가 돈 잘 벌게 해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인간 세상의 거의 모든 일이 돈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군사력, 정치력, 교육 프로그램, 교회 안의 예배당 건축이나 프로그램, 문화나 예술까지 다 돈입니다. 심지어 테러, 북한문제, 통일 문제까지도 다 돈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돈들을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숫자상의 돈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실재화폐가 있는데, 이 실재화폐를 내가 갖고 있다면 숫자상의 돈은 실재화폐에 적혀 있는 액면가대로 내가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레위지파와 이스라엘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데, 첫째 르우벤과 둘째 시므온이 나오고 셋째 레위 지파에서 머물러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인 유다 등으로 내려가지 않고 레위 지파에 집중이 되어있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론과 모세는 출애굽을 이루라고 명령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26-2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생각해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출애굽을 상식적으로 이야기 해보기로 합니다.
히브리인과 그들의 가족들 250만 명으로 추정되는 어마어마한 대 민족이 애굽 땅에서 노예생활을 하다가 그들의 삶의 터전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기 위해서 출애굽 프로젝트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상식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250만 명이 430년 동안 고센 땅에 살았는데,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합니다. 이 비용을 대충 생각해봅니다.
본문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에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는 아주 강경하게 히브리 노예를 풀어줄 생각이 없었고, 그 바로가 애굽의 전체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을 두 손에 쥐고 통솔하는 사람입니다.
이 강경하게 반대하는 바로의 억압을 뚫고서야 출애굽이 가능한데, 바로의 억압을 뚫으려면 애굽의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들을 무력화 시키려면 상식적으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군사를 키우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정치에도 돈이 필요하고, 경제는 자체가 돈이니 말할 필요도 없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의 총 비용이 얼마가 들겠습

니까? 힘이 있어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 돈의 힘 아닙니까?
이 출애굽을 성사키기 위해서 필요한 힘인 돈을 환산한 것을 우리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군대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군대는 통상적으로 조직과 체계를 갖춘 집단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군대로 말한 것은 앞으로 무수하게 많은 전투를 치러야 할 집단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보자면 출애굽이나 가나안 입성 모두 엄청난 군사력을 필요로 하는 대업입니다.
빠져나가기 위해서 바로의 군대와 싸워야 하고,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실제 형편은 '군대대로'라고 이야기했지만 지파들의 혈연 중심이지 전투를 위해서 특성화된 체계적인 조직도 아니고,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자들도 아닌 태어나서 지금까지 노예생활을 하던 자들입니다. 전투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투를 수행할 무기가 잘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모든 힘을 갖출 만 한 돈이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이렇게 필요한 힘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군사 훈련, 무기 구입, 체제 정비 등 모든 것이 돈이 있어야 갖출 수 있는 힘인데,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을 들여다보니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입에 담아준 말 한 마디입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는 이 한 마디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실 것이다'라는 이 한 마디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이 계획이 모세의 입에 전달되어 담겨졌습니다.
'애굽에서 내보내라'는 이 한 마디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실재화폐라는 것입니다.
이 한 마디가 실현되기 위해서 애굽이 초토화되는데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이 가라앉아 버렸다는 것이고, 그 상실된 비용만큼이 실재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주어진 열 가지 재앙의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었을 것인데, 그 돈으로 환산 될 수 있는 액수만큼이 출애굽을 위해서 동원된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숫자에 불과하고 이 숫자를 동원하는 실재화폐는 하나님께서 하신 '애굽에서 내보내라'는 한 마디였는데, 그 한 마디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그 말 한 마디가 그 어마어마한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돈을 실제로 불러들이는데 이것을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기름 값이 1,400원 대로 내려갔습니다. 옛날에 1,900원 할 때가 있었는데 기사분이나 택배하시는 분들은 아주 고통을 호소했는데, 기름 값이 1,400원이든지 1,900원이든지 이것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에 10리터의 기름이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그 기름이 1리터에 1억 원이 될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숫자에 불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실재화폐이고 이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손에 쥐고 있으면, 이

실재화폐인 하나님의 결정이 이 땅에서 성취되기 위해서 100억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100억이 쥐어질 것이고, 1,000억이 필요하다면 1,000억이 쥐어질 것이고, 이것은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창한 것은 피부에 닿지 않을 수 있죠.
예를 들어 근근이 살아가는 가난한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다 나가서 외식하자고 합니다. 짜장면 먹을 줄 알았는데 레스토랑에 가서 한 사람당 4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다 사줍니다. 그런데 이 아빠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이 그러했고 그것을 아빠가 받아들였다면 지금 돈이 있고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 계좌에 숫자상의 액수가 적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으로 스테이크를 먹느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주어지면 그게 실재화폐이고 세상의 돈은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동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낭비도 아니고 낭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 요걸 아십니까?

그러므로 비트코인을 캐내듯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계좌에 숫자상의 액수가 늘어나기 위해서 평생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실재화폐인 하나님의 결정을 캐내야 하는데,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광야생활과 가나안정복이라고 하는 250만 명의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40년 동안 250만 명이 광야에서 먹은 음식과 옷에 들어갈 비용을 다 환산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액수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결정이 실재화폐가 되어서 액수상의 화폐는 무한정으로 동원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액수상의 돈이 내 계좌에 없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애굽에서 내보내라'는 한 마디가 애굽을 초토화시킬 정도의 비용을 불러들여서 일을 성사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결정인 실재화폐를 내가 캐내고 그것을 쥐면 액수상의 화폐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액수상의 화폐를 보고 쫓아가는 짓은 미련한 짓이고 사탄의 꾐에 넘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캐냅니까?
우선 우리가 쓰는 실재화폐에도 위조지폐가 있듯이 위조지폐를 피해야 합니다.
내가 느끼는 내 필요, 내가 갖고 싶다는 나의 결정, 내 뜻, 내 계획, 내 소원이 위조지폐인데, 이것을 없애야 하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갖고 싶고, 사고 싶고, 외제 차 있었으면 좋겠고, 명품 백 하나 갖고 싶고… 나에게서 시작하는 모든 필요와 소원들은 위조지폐로서 실재화폐를 가려버리고, 실재화폐를 찾아낼 수 없게 만듭니다.
이 땅에 대해서 소원이나 계획, 결정이 생기면 십자가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내 마음 속에 깊이깊이 새기면서 위조지폐를 다 없애버려야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실재화폐가 주어집니다.
십자가에서 내 소원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결정만을 내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할 때에 그 장소가 거룩한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룩'은 지금보다 더 좋게 구별되는 것인데, 지금보다 더 좋게 구별되는 내일이고, 내일보다 더 좋게 구별되는 모레, 계속 구별되어서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결정과 나의 소원이 죽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상태의 거룩한 곳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돈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결정이 실재화폐입니다.

이 땅의 돈은 액수상의 화폐인데 그것을 동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내게 주셔서 나를 우선 하나님 부자로 만드십니다. 진짜로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되시는 당신을 내게 주시면서 나를 부자로 만드시고, 더 이상 내 마음 속에 세상에 대한 소원이 없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결정이 실재화폐로서 내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세상에 대한 모든 소원이 죽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부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나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결정이 주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결정이 주어져서 진행 될 수도 있지만 나의 마음은 부자가 되어서 다른 소원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붙잡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말씀을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배불러서 세상에 대한 아무런 소원이 없을 때에, 실재화폐가 주어지기 시작하고 실재화폐에 대해서는 액수로서의 돈이 들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실제로 돈이 동원되며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돈이 동원돼야 한다면 100억이고 1,000억이고 1조 이런 것은 다 숫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실재화폐의 내용이 1조원이 필요하다면 1조원은 숫자상 동원될 것이므로 우리는 숫자를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숫자상의 돈이 내 계좌에 적다고 해서 내가 가난한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고 있을 뿐이고, 이 실재화폐가 나의 소원을 통해 내가 삶을 추구해 들어갈 때에 위조화폐에 의해서 가려져버릴 수 있으니 언제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면 실재화폐는 필요할 때에 계속 주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봐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sensational한 삶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진행될 수 있지만 우리는 작든 크든 실재화폐를 추구하며 살 것이고, 실재화폐의 내용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출애굽이나 가나안정복과 같이 큰 비용과 큰 힘이 필요하다고 해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이 동원될 것이므로 돈은

마음에 둘 것이 아닙니다.

돈 몇 푼이 없어서 지금 쩔쩔매죠?
돈 100만 원이 없어서 죽을까 말까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저도 돈 없어요. 그러나 돈 때문에 급박할수록 십자가를 붙잡고 죽어야 하고, 돈이 급박하게 나를 몰아가고 급박함을 느끼는 것은 사탄의 짓이므로, 십자가를 붙잡고 이를 악물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기어코 내 마음이 돈이 억누르는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담겨져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자리까지 가야만 합니다.
돈이 억누르는 상태대로 밀리고 눌려서 행동하지 말고, 먼저 마음이 그 상태를 빠져나가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있는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으로 부자가 돼야 하는데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실재화폐를 캐내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마음에 실재화폐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 실재화폐를 따라서 일을 하고 발을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하다 보면 액수상의 돈은 필요한 대로 주어질 것이고, 돈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 돈만큼의 일이 그냥 이루어지므로 복음이고 선민인 것입니다.
아니, 이 정도 특권도 없으면 무슨 선민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돈을 마음속으로 쫓아가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특권도 없다면 그게 무슨 선민이겠어요? 더군다나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사들이신 선민들인데 이 정도 특권도 없겠습니까?
이제는 숫자상의 돈을 염두에 두지 말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려고 결정하셨는지, 오늘 하루는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결정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결정인 실재화폐를 캐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내보내라’는 말을 입에 담아주셨고, ‘애굽에서 내보내라’는 말을 전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 말 한 마디로 출애굽과 광야생활과 가나안정복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결정인 실재화폐를 매일매일 캐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출애굽을 보면 돈으로 상징되는 힘이 없이는 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말 한 마디로 되는 것을 봅니다.
내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실재화폐를 캐내는 일에, 돈을 벌기 위해 애쓰며 노심초사했던 모든 시간들을 이제는 다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